

소프트웨어는 人工知能을目標로

소프트웨어의 概念을 理解하고, 範圍를 把握한다는 것은 常當히 어려운 것 같으며, 이것을 相對가 簡單하고 쉽게 理解할 수 있도록 說明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 같다.

소프트웨어의 世界

人間의 思惟의 世界, 즉 精神과 心理의 世界를 모두하여 廣意의 소프트웨어 世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技術的 媒體를 通하여 商品化하는 것이 소프트웨어産業의 領域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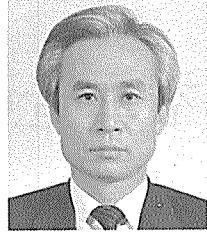
사람에 比喩한다면 人間の 肉體的인 部分은 하드웨어의 部門이고 精神的인 面은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過去의 人間文明은 主로 하드웨어의인 分野의 開發에 置重되어 왔으며, 今世紀에 이르러서 소프트웨어部門의 研究 開發이 活潑하여지고, 人間頭腦組織의 機能을 代身할 수 있는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컴퓨터를 結合하면 어떻게하여 機械가 自動的으로 作業을 하게되는 것일까? 이 疑問의 部門을 解決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인 것이다.

人間이 頭腦를 가지고 있더라도 教育을 通하여 知識을 蓄積하여야만 人間으로서의 能力을 가질 수 있듯이 컴퓨터

이상준
삼성데이터시스템 이사



터도 이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야 그 機能을 비로소 發揮할 수 있는 것이다.

一般工作機械와 컴퓨터를 結合시키고 여기에 그 機械가 人間을 代身하여 思考하고 行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必要한 소프트웨어를 附加한 것이 로봇이다.

世界 各國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들은 人間이 願하는 모든 일을 代身하고, 人間과 같이 思考하고 判斷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人間知識을 代身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開發에 全力을 기울이고 있다.

이 理想的인 소프트웨어가 바로 人工知能(AI)소프트웨어이다.

이 소프트웨어와 技術이 未來의 人間社會와 産業社會에 미칠 影響은 想像을 초월하고 있다.

우수한 人工知能을 가진 로봇이 人間社會에 普及되어 實生活에 利用될 때 그 知能의 水準에 따라 로봇을 支配하는 사람과 支配받는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인지?

컴퓨터, 通信 그리고 소프트웨어技術의 發展은 到來할 社會에 대하여 希望과 不安을 同時에 우리에게 주고 있다.

우리는 技術開發, 産業發展과 아울러 이러한 未來社會에 對處할 文化社會的研究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